

---

저자 (Authors)	백두현
출처 (Source)	<a href="#">어문학</a> , 1988.7, 45-64(20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a> , 1988.7, 45-64(2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어문학회</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04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049</a>
APA Style	백두현 (1988). 영남 동부지역의 속지명고-향가의 해독과 관련하여-. 어문학, 45-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嶺南 東部地域의 俗地名考

— 鄉歌의 解讀과 관련하여 —

白 斗 鉉

1. 지금까지 이루어진 향가 해독에 있어서 文獻에 수록되어 있는 地名 혹은 자연부락명 등의 俗地名들이 解讀을 위한 傍證資料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sup>(1)</sup> 그리고 俗地名 자체에 대한 形成의 背景, 俗地名에 보존되어 있는 古語의 발음, 俗地名의 형태론적 고찰 및 이들이 보여주는 音韻現象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그리고 향가 해독을 위한 傍證資料로서 뿐만아니라, 俗地名들을 향가 해독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킨 시도도 있어 왔다. 최범훈(1983)은 제주도의 地名 “岳音 으뜸밭”에 나타난 ‘岳=오름’의 대응이 淸星歌의 「三花矣岳音」과 연결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해독상 문제점이 전혀 없을 정도로 完結된 것이어서 해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俗地名이 향가 해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新羅語의 탐색을 위한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는 崔明玉 교수의 「月城地域語의 音韻論」이다. 이 저술은 신라의 발상지였던 月城郡 지역의 方言을 通時·共時的으로 분석하여 여러 음운론적 사실을 밝혔다. 俗地名의 一部는 方言보다 保守性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그 俗地名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국어학에 있어서 지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삼국사기 지리지를 中心으로 한 문헌 자료에 입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음운현상, 조어법, 형성의 유형, 語素 등을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영남지방의 동부지역(월성군, 경주시, 영일군, 영덕군, 영천군, 울주군, 울산시)에<sup>(2)</sup> 존재하는 俗地名을 대상으로 고찰하며, 이 俗地名 중

(1) 대표적인 것으로 小倉進平(1929), 梁柱東(1965)을 들 수 있다. 향가해독 이외에도 비교언어학적 연구에도 부분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2) 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본고의 일차적 목적이 俗地名들에 化石形으로 남은 어휘들 향가해독과 관련시키는 데 있으므로, 신라의 본거지였던 이 지역들의 俗地名이 신라어의 殘影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에서도 향가 해독에 一助를 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자료에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서 俗地名이라 함은 村落, 川, 岩石, 嶺峴 등 面單位 이하의 소규모 地形 地物에 관한 명칭으로 비공식적으로 민간에서 쓰이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79)에서 가려낸 것이며, 하나의 地名이 漢字語 명칭과 고유어 명칭을 共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漢字語 명칭과 고유어 명칭을 함께 가진 俗地名을 택한 이유는 이들의 意味素를 쉽게 抽出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漢字語 명칭 중에는 전통적인 借字法이 반영된 것이 상당수 있어서 俗地名에 나타난 語形의 史的 탐색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漢字語 명칭과 고유어 명칭을 함께 가진 俗地名이라 하더라도 고유어 명칭이 옛 문헌에 실려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므로 그것이 形成된 年代를 고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景德王 때 지명의 漢字化를 시도한 자료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남아 있으나, 그 지명들은 郡·縣 단위로 앞서 말한 俗地名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경덕왕 당시에 郡·縣의 명칭뿐 아니라 村落을 포함한 俗地名까지 漢字化시켰는지의 여부인데, 현재의 필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山名, 川名, 村名 등의 명칭이 漢字語로 등장하는 예가 다수 있는 점으로 보아 경덕왕 당시에 村落을 포함한 俗地名도 漢字化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위의 두 문헌이 몇 백년이나 뒤에 나온 것이므로<sup>(3)</sup>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俗地名의 漢字化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俗地名의 경우는 고유지명이 현지 거주민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음으로 보아 漢字化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뿌리 깊게 박힌 고유지명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俗地名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음은 현재의 俗地名 중 일부는 아직도 이른 시기의 언어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된다. 이 중에서 향가해독에 편련될 수 있는 것을 향가에 등장하는 語形에 대치시키면서 보다 객관성 있는 해독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판제되는 향가의 어휘 혹은 구절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독과 비교할 것이다. 俗地名에 간직되어 있는 古語形이 발굴되어 이것이 향가해독 및 국어사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자료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3) 地名의 漢字化는 경덕왕(A.D. 757년) 때이고 삼국사기의 간행은 A.D. 1145년이며 삼국유사는 A.D. 1285년이다.

2. 이 글은 俗地名의 형성연대를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 일부는 상당히 오래전의 語形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우선 속지명에 반영된 어형이 中世語 혹은 그 이전의 것이리라 하는 점을 검증하고 俗地名의 借字法과 鄉歌의 借字法이 가진 共通性을 밝히기로 한다.

### 2.1 단·뜸

姜信沆 教授는 朝鮮館譯語 研究에서 <村>을 表記한 「存」과 「呑」을 해독하면서 이 항목도 해결이 잘 안되는 것이라 하고, 현대중국어의 村이나 村落을 뜻하는 屯川 t'un-ə, 村屯 c'un-t'un을 고려하여 呑을 屯의 寫音으로 보려 하였다(1974, 22). 小倉進平은 呑을 ton(洞)의 寫音으로, 金喆憲은 東國輿地勝覽에 於支谷—云翼呑 水谷城縣—云買忽忽...등이 있는 예를 들어 呑을 「呑」으로 보았다.<sup>(4)</sup>

다음의 俗地名들은 呑과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新基 새각단(경주시 구광동)
- ② 鶴洞 새각단(울주군 온산면)
- ③ 芋田 모시밭각단(원성군 진천읍)
- ④ 烽火 봉화각단(경주시 보문동)
- ⑤ 積각단(원성군 장동면)
- ⑥ 復興洞 부영드미(원성군 장동면)
- ⑦ 斗谷 뜰실(영일군 송라면)
- ⑧ 上村 우뜸, 옷다(경주시)
- ⑨ 下求 아랫뜸(영천군 대창면)
- ⑩ 큰뜸(영일군 의창면)
- ⑪ 連塘뜸(영일군 의창면)

위의 예들에 나타나는 「단」은 '呑'으로 表記된 고유어로서 촌락·마을·洞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俞昌均(1985, 319)교수는 '如湛國'의 湛 tan을 고구려지명에 나오는 呑 tan의 異形態로 해석하고 그 轉寫音은 tam 이라 하였다.<sup>(6)</sup> 박병채(1968, 81)교수는 고구려 지명에 나타나는 呑/旦/頓을 <谷>에 대응시키고, 국어 漢字音으로는 無氣音 tan/tun/tan 일 것이라고

(4) 姜信沆(1974, 22)에서 再引用한. 同書에서 姜信沆교수는 村里를 표기한 「存立」, 「呑阿奈」도 같은 맥락에서 해독하고 있다.

(5) 최범훈(1976: 294)교수는 '둔지' 型을 설정하고 '둔지'는 屯田에서 유래된 지명 이라고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할 바 있다. 큰 둔지(內村, 陰德), 덕둔(德屯). 이들은 呑과 그 기원이 다른 것으로 짐작된다.

(6) 이런 생각을 빌린다면 ①~⑤의 「단」과 ③~⑩의 「뜸」「뜰」을 異形態관계로 볼 수 있다.

추정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신라와 백제지명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고구려어의 대표적 어휘중 하나라고 간주하였다. 三國史記 지리지의 신라·백제지명에 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위에 제시한 영남동부 지역의 俗地名들로 보면 이 어휘가 전적으로 고구려어였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데는 문제가 있다. 김주원(1981, 77)은 고구려 지명의 썸, 且, 頓의 音을 tuan 으로 잡고 谷에 대응한다고 보았으며, 이 어휘는 正音文獻에 나타나지 않고 조선관역어에 잠시 나타날 뿐, 신라어의 영향으로 소멸된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三國史記 지리지의 지명 자료로만 볼 때는 성립 가능하지만 신라의 故土였던 영남 동부 지역의 小地名에 「단」·「듬」이 널리 散在한다는 사실은 위의 견해에 대한 再考를 요구하는 것이다.

## 2.2

- ① 丹溪 사근달(영천군 금호읍)
- ② 丹邱里 붉은디(더)기(월성군 강동면)

李基文(1972, 34)교수는 고구려어가 가진 독특한 어휘요소 중에서 ‘赤’의 표기인 沙非斤, 斯伏을 各各 \*sapikən, \*sapuk 으로 재구하였다. 同書(38쪽)에서도 백제어의 상층으로 남아 있을 부여계 어휘를 탐색하면서 赤烏縣本百濟所比浦縣의 예를 통해 \*supi를 재구한 바 있다. 이는 일찌기 박병채(1968, 84)에서도 고구려지명의 赤과 백제지명의 所比를 관련시켜 검토된 바 있다.<sup>(7)</sup>

위의 예 ① 舟은 「사근」에 대응되고 ② 舟은 「붉은」에 대응된다. ①의 「사근」이 고구려어 赤에 해당되는 沙非斤 \*sapikən과 모종의 관계를 지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통찰력 있는 後考를 기대한다.

## 2.3 그 밖의 몇 어휘

- (1) 基腋 덧얹(월성군 양남면)

현대어 「옆구리」에 해당되는 十五世紀의 語形은 「넙」이었다.

- 넙爲脊<解例 舍字>  
右脇은 울흔 너비라<月二 17>

이 「넙」이 위의 지명에서는 「얹」으로 반영되어 있다.

- (2) 東坪 쓸기들(영일군 신평면)  
車隘洞 수구너미(영덕군 흑산면)<sup>(8)</sup>

(7) 都守熙(1984, 94~103)교수는 이와 관계있는 여타까지 자료를 검토하여 보다 확대된 의미파악을 보여주고 있다. 沙非, 所比, 泗泚 등을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의미는 東, 曉, 新, 赤이라 하였다.

(8) 龍飛御天歌(五 34)에 ‘車隘술위너미’가 보인다.

## 슬구재 (영일군 의창면)

‘車’를 뜻한 十五世紀 어형은 「슬위」인데, 十五世紀의 정서법 원칙을 따르려면 「수위」가 되어야 하는데도 항상 「슬위」로 나타나는 까닭을 (2)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先行하는 ㄹ뒤에 원래 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ㄹ에 의해 ㄱ이 탈락한 뒤에도 이것이 모종의 음운론적 기능을 하여 「슬위」로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슬위」의 앞선 단계로 \*슬귀를 재구할 수 있다. 「슬기」와 「슬구」는 \*슬귀에서 각각 다른 음운변화를 겪은 것이다.<sup>(9)</sup>

## (3) 熊峴 고무재 (울주군 언양면)

熊村 골내 (울주군 용촌면)

熊倉 골창 (영덕군 축산면)

이 중에서 「고무재」의 「고무」가 관심을 끄는 것인데, 이것은 백제지명으로 용비어천가(三 15)의 ‘熊津고마노락’에 보이는 「고마」에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달구통」(닭+의+통)에서와 같은 屬格形이 介入되었을 가능성도 크므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 (4) 得良提 실못 (서리못) (원성군 서면)

十五世紀에 副動詞形 「서러」로 흔히 등장하는 語形이 이 地名에서는 「得良」이라는 訓主音從의 鄉札式 表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草谷里 사일, 새일 (영일군 의창면)

道草 도새 (월성군 내남면)

증세어에서 <草>에 해당하는 고유어로 「물」 이외에 「새」라는 語形이 있었다.<sup>(10)</sup>

훈 새 지비로소니 (-草堂) (杜초 2)

## (6) 銅店 동점 (영일군 지행면)

銅店 동점 (영일군 대송면)

銅은 唐韻에 徒紅切, 集韻에 徒東切로 나오는데 Kalgren이 재구한 中古漢音은 ,dʰuŋ이다. 동국정운에는 ‘동’ (卷-16), 훈몽자회(中 15b)에는 ‘구러동’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黃銅류석 紅銅동’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석보상절(六 28)의 ‘통부플 터면’에서 「동」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동」은

(9) 현존하는 지명 (2)의 예들이 十五世紀 語形보다 더 古形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은 地名의 保守性을 새삼 느끼게 한다.

(10) 이 「새」는 方言形 「씩은새」(경북, 성주)에 남아 있다. 초가집 지붕을 뚫가울에 새로 이을때 지난해 일했던 이영을 벗겨내는데 이것을 「씩은새」라 부른다.

全濁음이 次清음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확실한 단정은 곤란하지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 방언의 차용어가 아닐까 한다.

- (7) 堤内里 모산(영일군 대송면)  
池内 모산(영일군 동학면)  
池内坪 모산(영일군 의창읍)

현대국어에서 ‘웃안’은 [오단]으로, ‘룻안’은 [코단]으로 발음되어 音節末 시이 未破되는 데 비해 위의 지명은 未破되기 이전의 음운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十五世紀에는 음절말의 시이 未破되지 않았음은 익히 아는 바이다.

- (8) 巴次浦 바우구지, 과의포(영일군 지형면)<sup>(11)</sup>  
包伊浦 바우구지 과이포(영일군 지형면)  
小八助 소바질(월성군 감포읍)  
下扶助 아르주지(영일군 영일면)

앞의 三列는 漢字音의 次清이 全清으로 반영되었고 끝에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삼국시대의 王名에서 次次雄과 恣忠은 有氣音 ㄷ과 無氣音 ㅅ이 상호 교체되었는데, 중국 한자음의 次清은 東音에서 無氣音으로 반영된 예가 많다(탁명채, 1973), 이런 점은 고대국어의 한 특징인 바 위의 지명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2.4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지명의 借字法과 전통적인 借字法이 가진 共通性 몇가지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말 표기를 위한 전통적 借字法은 漢字의 뜻을 이용하는 것과 音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뜻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漢字가 가진 원뜻을 유지하는 것은 訓讀, 그렇지 못한 것은 訓借로 나누어지고, 音의 이용에 있어서도 원뜻의 유지 여부에 따라 音讀과 音借로 나누어진다.<sup>(13)</sup> 본고에서 다룬 俗地名도 대부분 이러한 借字體系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점은 영남동부 지역의 지명만이 가진 특성은 아니고 다른 지역의 俗地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가 본고의 가정에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삼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11) 鄉名表記에서 나타나는 巴衣는 ‘보리’로 해독되었다(남동현, 1981 : 61, 125). 한편 고구려 지명에도 巴衣, 波衣(巖)와 같이 巴(波)가 ㅂ에 대응된 예를 볼 수 있다.  
(12)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체열의 유무에 대한 견해는 이기문(1972)과 박병채(1973)에서 相異하게 나타나 있다.  
(13) 借字體系에 대한 정밀한 논의와 논리적 체계화는 남동현(1981 : 11~15)에 기술되어 있는데 ‘借’대신에 ‘假’를 이용한 술어를 제안하고 있다.

俗地名에서 서로 대응하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검토해 보면 그 유형으로 「훈독+훈독」의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밖에 「훈독+음독」「훈독+음차」 등의 유형도 발견된다. 이런 유형의 자세한 검토는 현재의 논의에 직접적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鄉札에서 借字體系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訓主音從이라는 술어로 요약될 수 있다(김완진, 1980: 17~23). 이 원리는 三國遺事 卷三〈原宗興法 獸鬪滅身〉條에서 獸鬪의 名字를 설명하는 협주란의 “今譯上不譯下”라는 기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의 지명들도 이 원리의 적용으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得良堤 실돛, 지리돛(월성군 서면)

柳等川 버들길(경주서)

柳等洞 버들굴(영일군 연일면)<sup>(14)</sup>

小近浦 작은개(영일군 지평면)

所遙里 바탕골(월성군 내남면)

星羅峴 별래개(영일군 청학면)

羅兜浦 버릿개(월성군 양남면)

鄉歌에서 音借字로 쓰인 叱, 只, 乙 등이 사용된 지명에서도 借字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道叱 못길, 도동, 도길(월성군 서면)

斗乙山 두울산, 들산(월성군 양북면)

芟味 갈미동(월성군 외동면), 芟面山 갈미봉(영덕군 山川), 石己溪 돌계(월성군의동면)

沙只 새기, 사지(영일군 구룡포)

都只 도기, 도지(영일군 동해면)

飛只 밀기(월성군 내남면)

路隱淤 논달보(영천군 대창면)

古邑坪 짚두리(영천군 대창면)

道音谷 돌실(월성군 서면)

於音里 너티미(울주군 언양)

위의 예들에서 叱: ㅅ, 只: 기, 乙: ㄷ, 隱: ㄴ, 邑: ㅂ, 音: ㅁ의 대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향찰이나 鄉名 등 고유명사 표기에서 전통적으로 쓰였던 것들이다.

(14) 鄉名表記「楊等梁 버들돛」에서 ‘等’을 발견할 수 있다(남풍원, 1981: 61).



3. 이상의 검토를 통해 俗地名에 담긴 語形의 일부는 상당히 이른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俗地名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향가해독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진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 3.1. 汀里

- ① 景汀里 뱃불(영덕군 축산면)
- ② 鯨汀 모래불(영덕군 山川)<sup>(15)</sup>
- ③ 흰돌불(영덕군 달산면)
- ④ 해수불(영덕군 영해면)
- ⑤ 큰갯불(영덕군 영해면)
- ⑥ 장감불(울산시 성암동)
- ⑦ 성넘불(울산시 성암동)
- ⑧ 큰감불(울산시 성암동)
- ⑨ 칸치불(울산시 성암동)
- ⑩ 다작불(월성군 양남면)
- ⑪ 魚灘沙 어릿불, 어룡사(영일군 동해면)
- ⑫ 松羅밭, 松羅濟 송라밭(영일군 송라면)
- ⑬ 감불(원성군 양북면)

위의 地名은 江이나 川에 있는 모래톱을 가리키는 것들인데 ⑫만 바닷가의 모래밭을 지칭한 것이다. ③~⑩은 고유지명만 기록되어 있고 대응되는 漢字語 지명이 없다. ②는 「흰돌」 앞에 있는 모래톱이고 ⑩은 ‘남쪽의 모래밭’이다.<sup>(16)</sup>

특히 ① 景汀里에서 讀耆婆郎歌의 〈沙是八陵隱汀理也中〉에 나오는 「汀理」와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汀里」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讀耆婆郎歌의 「汀理」의 해독을 위한 소중한 단서를 확보하게 된다. 「汀理」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구절은 기왕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독을 보여 주고 있다.<sup>(17)</sup>

沙是八陵隱汀理也中

小倉進平 도래 팔은 불로에

梁柱東 새 파른 나리여히

池慈英 새 널른 나리여

(15) 〈山川〉은 지명용람의 山川항목에 실린 것이다.

(16) ⑩의 「마작불」에서 〈南〉을 뜻하는 「마」를 발견할 수 있다; 마파람(南風)

(17) 편의상 구절 전체의 해독을 인용한다.

金善琪	사이 빠른 나리에
徐在克	새 타운 물시브리야히
金俊榮	새파른 물기여히
金完鎭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小倉進平과 金俊榮의 「물즈」 및 「물기」는 「汀理」의 「理」表記를 무시하고 「汀」의 古訓에 의존한 것으로 적절한 해독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주동, 지현영, 김선기의 「나리」 혹은 「누리」는 「理」를 고려하여 해독한 것이기는 하나, 「나리」에 해당되는 川理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구태여 「汀理」를 사용한 까닭을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다. 金完鎭 教授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충남 당진군 소재의 「機汀市」라는 지명이 ‘물무시’라 불리는 절에 착안하여 ‘汀=무시<\*물시’의 과정을 세우고 여기에서 ‘汀理=물서리’를 끌어 내었다(金完鎭, 1980 : 86~87). 이 추정은 ‘저>시’와 같이 /s/뒤에서 /ə/가 /i/로 前舌高母音化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국어의 음운변화에서 ‘i>i/s-’와 같은 규칙은 일반적이지만 ‘ə>i/s-’와 같은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徐在克(1975 : 17) 教授는 方言으로서 「물시불」을 들고, 그 재구형으로 「\*물시브리」를 설정한 바 있다. 필자는 徐在克 教授가 제시한 자료와 김완진 교수의 「\*물시」 및 의의 地名에 공통된 「불」을 고려하여 「汀理」를 「물시브리」 혹은 「물시보리」로 보고자 하는 바 이것은 徐在克 教授의 해독과 일치하는 것이 된다. ①~⑬에 「불」만 나타나는 것은 지명의 단축으로 인해 「물시」는 탈락되고, 「브리」(혹은 「보리」)는 「불」(<불)로 末母音 i가 탈락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機汀市의 ‘물무시’에 있는 「무시」는 「물시브리」의 물시에 대응되고 「브리」(혹은 「불」)가 탈락되어 단축된 지명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해석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해, 「물시」는 機汀市 「물무시」의 「무시」에서 얻어 낼 수 있고, ①~⑬의 地名에 나타난 「불」과 「무시」를 함께 고려하여 우리는 「물시브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機汀市의 汀市를 「물시」로 보는 이유는 「市」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물서」라면 市가 아닌 다른 글자 예컨대 「西」와 같은 것으로 표기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던 또한 ‘ə>i/s-’라는 변화를 가정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된다.

「물시브리」가 가진 타당성은 이 어형의 造語法과 「시브리」 혹은 「시불」의 형태와 가까운 어형을 가진 다음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方言 資料와 문헌자료에서 인용한다. (18)

(18) 방언자료는 김형규(1974)에서 취한 것이다. 문헌자료는 劉昌淳(1964)에서 인용하였다.

## 〈입술〉

ipsuweri(경북:영덕)

ipsuburi(경북:울진, 영양, 영덕 등, 경남:울산, 울주, 거창등)

ipsubəri(경북:경주, 월성, 예천 등, 경남:울주, 울산, 거창등)

ipsubul(강원:영월, 경북:경주, 월성, 포항 등)

脣은 입시우리라(訓諺)

脣 입시우순(字音上 26)(類合上 21)

모기며 입시우리 내물라(석九 29)

입시우의 드리디 아니하더(法化六 13)

비는 입시울 쓰리니(訓諺)

## 〈눈썹 혹은 눈시울〉

nunsuburi(경북:고령)

nunsubəri(경북:성주)<sup>(19)</sup>

蹠 눈시울침(字音上 25)

眼邊 눈시울(漢 146b)

눈시우탈 뒤디 아니하야(蒙 24)

## 〈활시위〉

弓弦 활시위(漢 129d)

활시울 잇거든(老下 29)

활 시우를 지히(教方上 61)

## 〈빛시울〉

絃 빛시울현(字音中 26)

위의 例는 복합어에서 「시블」과 관계되는 어형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시울」이 單一語로 나타나는 어형은 다음 예들에서 볼 수 있다.

슬픈 시우레 白雲曲이 버트렛느닌(哀絃繞白雲)(杜초七 30)

笙篳는 모기 구분하고 鳳이 머리 텅골오 시울흔 거시라(석十三 53)

고든 시울(直絃)(능六 113)

弦 시울현(字音上 28)

絃 시울현(類合下 33)(石千 36)

활 가져다가 시울 연즈라(上弦箭)(老下 27)

거문고 시울 언저(松江一 23)

「입술」의 方言形 「ipsuburi, ipsubəri, ipsubul」은 비(혹은 빙)이 유지되어 있는 語形이며, 「시」에 대응하는 「su」는 「시」의 모음 i가 後行 脣子音 앞에

(19) 이것은 필자의 방언이며 〈눈썹〉을 뜻한다.

서 역행동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ipsubul」의 ‘bul’은 ‘브리’의 i모음이 先行 脣子音에 순행동화한 것이다. 그런데 문헌자료의 「입시울」, 「입아랫시울」은 이와 다른 음운변화를 겪은 어형이다. 이 어형들에서 양순자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beta > W$ 의 변화를 입어서 w의 영향으로 탈모음 i가 u로 표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u는 방언형 「ipsuburi」, 「ipsubul」에 나타나는 b위의 모음 u와는 다른 변화과정에서 의해 결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입시울」의 u는 선형 순자음에 의한 동화의 결과라기 보다,  $\beta > W$ 의 결과인 w가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wi→u).<sup>(20)</sup> w를 표기하기 위한 노력을 「활시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는 「시울」의 재구형 「\*시브리」(혹은 「시브리」)를 설정할 수 있다.<sup>(21)</sup>

「ipsuburi, 입시울, 논시울, 활시위, 활시울, 빗시울」은 복합어이고, 「시울」은 단일어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브리」 혹은 「시울」의 정확한 뜻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자료 중 단일어로 나타나는 「시울」은 대응되는 漢字語가 絃, 弦이고, 「활시울」의 「시울」은 弦, 「빗시울」은 絃에 대응되고 있다. 絃樂器의 한 부분인 絃, 활시울의 弦, 빗시울의 絃은 모두 그 形態가 彎曲되어 있거나 彎曲될 수 있는 점이 共通的이다. 이 점은 「입시울」, 「논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시브리」 또는 「시울」의 의미자질 중의 하나로 「彎曲的」을 설정할 수 있다. 「물시브리」에서도 동일한 의미자질을 찾을 수 있다. ①~⑫의 地名이 <모래톱>을 가리키고 있으며, 江이나 川에 형성되는 부채꼴을 이루어 彎曲形을 취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보아 「물시브리」는 물의 흐름이 彎曲形을 취하고 있는 모래톱에 닿아서 함께 彎曲된 流水를 뜻한다.<sup>(22)</sup> 그리하여 이 구절 전체의 의미는 ‘모래가 잘라져 彎曲된 물시비에’ 정도로 파악된다.

한편 嶺南歌에도 「汀」이 사용된 곳이 있다. 嶺南歌의 “舊理東戶汀叱”이 그것인데, 이 곳에는 叱이 添記되어 있는 점이 「汀理」와 다르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舊理東戶汀叱

小倉進平 昔로東入를古入

(20) 순자음에 의한 i의 원순도음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21) 古代語에서 氷의 존재 여부는 본고의 관심대상이 아니므로 氷의 표기는 잠정적인 것이다. 이 문제는 崔明王(1978) 참조.

(22)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만곡형의 모래톱에 따라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며 흐르는 물과 모래톱의 接線이다. 蒼郎의 形象이 이러한 彎曲形의 부드러운 線에 있다는 점은 신라인의 審美觀과 관계있는 문제일 것이다.

梁往東 배시사물ᄃᆞ  
池慈英 구술노사  
金善琪 나리셀물간  
徐在克 배누리셀물ᄃᆞ  
金俊榮 배셀물ᄃᆞ  
金完鎮 너리셀물ᄃᆞ

「汀叱」의 해독은 지현영과 김선기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 「汀」의 訓의 못ᄃᆞ(字會上 4)과 물ᄃᆞ(類合上 6), 물ᄃᆞ(倭上 9)로 나타난다. 汀의 訓은 아니나 「물가」(水邊)를 의미하는 다음 자료가 있다.

물ᄃᆞ새 평흔 돌의 잇더라(석十一 25)  
두어 나를 향오사 물ᄃᆞ새 잇다니(月十 24)  
물ᄃᆞ새 두 주지미(속 三烈 8)  
물ᄃᆞ새 보기 옛노니는(河邊兒觀魚的)(朴초上 70)

「汀」의 훈으로 「물ᄃᆞ, 못ᄃᆞ」가 존재하고, 「汀叱」의 叱이 향찰에서 스을 表記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叱은 「물ᄃᆞ」의 末音添記로 볼 수 밖에 없다. 찬기파랑가의 「汀理」와 해성가의 「汀叱」은 각각 다른 語形, 즉 前者는 「물시브리」(혹은 물시보리) 後者는 「물ᄃᆞ」을 표기한 것이다. 김완진 교수(1980: 21)는 이 둘을 類義語로 보았으나 「물시브리」와 「물ᄃᆞ」은 意味가 相異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汀」을 共有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득이한 표기상의 선택일 것이다. 앞에서 「물시브리」의 의미를 變曲形의 모태됨에 따라 부드럽게 曲線을 이루며 흐르는 물과 모태됨의 接線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물ᄃᆞ」은 단지 <水邊>만을 뜻한다.<sup>(23)</sup>

### 3.2 蕪

- ① 蕪頭 솟머리, 솟머리, 수머리(경주시 보문동)
- ② 蕪內坪 솟안들(영일군 송라면)
- ③ 菸蕪林 느러들숲(영일군 지행면)
- ④ 五里蕪 오리수, 오리숲, 오리쭈, 아리쭈, 아리숲(경주시 구황동)
- ⑤ 閑地蕪 한지수, 한지쭈(경주시 구황동)
- ⑥ 高성쭈(경주시 등천동 성전동)
- ⑦ 魚岱蕪 어대수, 어대쭈(경주시 성동동)
- ⑧ 林井蕪 임정수, 임정쭈(경주시 황성동)
- ⑨ 皇城蕪 황성쭈, 황성숲(경주시 황성동)

(23) 이 「물ᄃᆞ」<水邊>은 江, 川, 湖水, 池 등등 땅과 물이 접한 곳에서 땅쪽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면에서 「물시브리」와는 異義語라 보는 것이다.

- ⑩ 花山蕨 화산쑤, 화산술(영일군 송라면)
- ⑪ 宅前蕨 택전쑤, 택골쑤(영일군 열일면)
- ⑫ 鳳林蕨 봉림쑤(영일군 의창면)
- ⑬ 篔簹蕨 망계쑤, 망계쑤(영일군 의창면)
- ⑭ 必美蕨 필미쑤, 필기술(영일군 청하면)

위의 예들에서 蕨는 「수」「쑤」「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 林이 「술」으로 나타나는 예를 몇 개만 제시한다.

- ⑮ 林洞 숲골(월성군 산내면)
- ⑯ 黑林 검은술(월성군 천북면)
- ⑰ 林谷里 숲길, 수구실(영일군 동해면)
- ⑱ 林中里 숲안(영일군 지행면)
- ⑲ 林洞 숲안(울주군 두동면)

항가에서 「蕨」는 彗星歌, 讚者婆郎歌, 遇賊歌에 한번씩 출현하는 것이다. 蕨가 포함된 구절의 解讀例를 提示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烽騎邪隱邊也蕨耶(彗星歌)

小倉進平	烽살은 ㄹ이 그자
梁柱東	燧술안 ㄹ 이슈라
池窓英	烽(불) 술안 ㄹ에 드르
金善琪	烽 사란 길에 고지라
徐在克	烽 사란 모히야 슈라
金俊榮	烽 술안 마의 슈라
金完鎮	烽 디안 어의 슈드리아

小倉의 「그자」는 蕨=花(꽃)=插(꽃-)이라는 우회적인 과정을 거쳐 유도된 訓讀으로 意味는 <至>라고 해석되었다(1929: 218). 양주동은 也蕨가 「이시-」(有)를 借音한 것으로 보고 蕨를 음독(그의 用語로는 音借)하였으며, 「也」의 처리는 다르지만 이와 가까운 태도를 서재극과 김준영에서도 볼 수 있다. 지현영의 「드르」는 들뜰, 山間, 山의 뜻을 가진 독특한 훈독이며, 김완진의 「수플」은 蕨의 뜻을 최대로 살린 훈독이라 하겠다.

앞의 地名 例들에서 蕨의 讀法에 대한 一端의 暗示를 얻을 수 있다. 즉 여기에서 蕨는 「수플」의 뜻을 가진 「수」로 音讀하든가 아니면 訓讀하여 「수플」 또는 「술」으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로 읽더라도 이것은 온전한 의미의 音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正音文獻에 고유어로 보이는 「수흥」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적벽으로 대수론 소리에 일파(蒙 10)

집뿔 땃수혜(속삼烈 12)

땃수혜를 보헛고(杜초수 2)

叢林은 보라 난 수려요(月十 69)

그리고 龍飛御天歌에 실린 地名에도 「蕪=수」가 보인다: 箭竹蕪 샷대수(응 五 26). 이런 사실들은 적어도 十五世紀에는 漢字語 「蕪」에서 借用된 「수」가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로 보면 蕪를 「수」라고 읽는 것은 혼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수」는 蕪의 借用語로서 고유어화 되었다면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擘星歌의 蕪를 이러한 관점에서 「수」라고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sup>(24)</sup> 물론 「수풀」일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와 함께 「수풀」<sup>(25)</sup>도 十五世紀 文獻에 나타난다.

수프리 이서 放光야(적十三 21)

忘想 수프리 靈혼 값닐홀 尙야(金삼四 24)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擘星歌의 蕪는 <수풀>의 뜻을 가진 것으로 推定한다. 邊也蕪는 수풀의 명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地名)일 수도 있고, 邊也와 蕪를 떼어 놓고 본다면 蕪는 수풀을 뜻하는 보통명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蕪」는 讀香婆郎歌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구절에 대한 諸家の 해독은 다음과 같다.

耆郎矣兒史是史蕪那(讀香婆郎歌)

小倉進平 耆郎의 짓이사 고자

梁柱東 耆郎이 쓰시 이수라

池邊英 耆郎(디도리)이 뭇(쓰시) 잇도라

金禧瑛 찌랑에 쓰시 이시슈라

徐在克 耆郎이 쓰시 시슈라

金俊榮 耆郎의 쓰시 이사슈라

金完鎭 耆郎이 쓰시올시 수프리야

위의 해독에서 蕪의 해독을 讀法面에서 본다면 小倉과 지현영은 訓借에 속하고, 양주동, 김선기, 서재극, 김준영은 音借에 해당되며, 김완진만이

(24) 「수」의 중성음은 향찰 표기의 소루함으로 표기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수풀」은 기원적으로 「수」(蕪)와 「풀」(草)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였을 지도 모른다.

訓讀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김완진교수의 해독은 그가 해독의 기준으로 내세운 訓主音從의 基準에 따라 「是」를 혼독한 점과 「邪」를 음 그대로 「야」로 읽은 점이 특이하다. 그 결과 이 구절에 대한 의미파악이 判異하게 되고 詩의 情感도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필자는 擘星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蕪」도 그 원뜻을 살린 音讀이나 혼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의 「蕪」를 音借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는 김완진(1980: 87)에서 적절히 지적되었다. 擘星歌의 蕪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의 蕪에서도 末音添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을 「수틀」로 訓讀하는 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수틀」의 ㄹ을 表記하는 末音添記字(날=日尸과 같은)尸字가 없다는 것은 이 蕪를 音讀이 아니라 혼독의 「수」로 읽어야 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뜻하고 있을지 도론가. 현재의 필자로서는 확실한 단정을 내리기 어렵지만 일단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끝으로 蕪는 遇賊歌의 한 句節에도 출현하는 바 이에 대한 諸家의 解讀은 다음과 같다.

今音蕪未去遊省如(遇賊歌)

小倉進平	열단 숨이 가고소다
梁柱東	열산 숨에 가고소다
池憲英	몸은 도에 가고소다
金鶴球	열피 다니 숨에 가고소다
徐在克	여든 드림 가져심다
金俊榮	열산 숨대 가고소다
金完鎮	열든 수틀 가르설다

이 구절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것은 蕪 뒤의 「未」이다. 小倉은 蕪를 숨으로 해독한 뒤 이 어형에 있는 終聲 日은 ㅁ과 相通한다는 論理로 「未」를 처리하였다(小倉進平, 1929: 232). 따라서 讀法으로 본다면 小倉은 혼독에 속한다. 양우동은 蕪未를 動詞 語幹 「숨-」(隱)의 義訓借로 보았고, 김준영은 이것을 「숨대」로 읽고 여기에는 「숨에」라는 뜻 이외에 「숨-」(隱居)의 뜻이 내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준영, 1982: 171). 지현영과 서재국은 <두메>, <山間>의 뜻으로 혼독하였으며, 김완진은 「수틀」로 혼독하고 「未」는 앞 구절의 「過」에 대응되는 문법요소로 보아 「去遊省如」의 행동이 未完임을 지시하는 것이라 하였다(김완진, 1980: 148). 김완진을 제외한 대부분 해독자들이 讀耆婆郎歌와 擘星歌의 「蕪」는 音借로 보았는데 반해서 이곳의 「蕪」는 혼독하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 이런 태도는 해독상의 일관성



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될 점이다. 필자는 이곳의 「薇」도 원뜻을 그대로 지닌 「수」(또는 「수풀」)로 읽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 근거는 「未」의 문체와 관련하여 이 遇賊歌의 前半部의 해독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저 三國遺事에 실린 原文의 前半部를 옮긴다.

自矣心米 貞史毛邊只將來吞隱日遠鳥逸□□過出知遊 今吞薇未去遊省如

여기에서 첫째로 문제가 되어온 것은, 原文에 貞史~知遊까지 전혀 行의 區分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行區分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독에 있어서 나타난 주요 차이는 日을 앞으로 붙이는가, 아니면 뒤로 내려 해독하는가에 있다. 小倉은 日을 뒤로 내려서 제 三行의 첫자로 처리하여 「해」로 훈독했고, 양주동은 제 二行의 마지막 字로 보아 「날」로 훈독했다. 지현영은 제 三行으로 내렸으며 서재극은 行區分을 하지 않았으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앞으로 붙이게 되어 있다. 김준영은 양주동과 같고 김완진은 제 三行으로 내렸다.

日을 포함한 後行 三字(遠鳥逸)의 해독도 各樣各色이다: 小倉~해 머오일, 梁柱東~날/머리, 지현영~저므울(저른 울), 김선기~올라니/멀오일, 서재극~날 멀 새, 김준영~늘/머오일, 김완진~日遠鳥逸.<sup>(26)</sup>

필자는 日을 제 二行으로 올려 붙여 「날」로 훈독하는 견해를 취한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어온 것은 위에서 □□로 표시한 缺字 부분이다. 이 부분을 補入하여 해독한 것으로는; 지현영~느리(川理), 김선기~西山, 서재극~ㄷ히(如支)?, 김완진~ㄷ라터(月矣 또는 月衣)가 있고 小倉과 김준영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양주동은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필자는 「느리(川理)」로 補入한 지현영의 견해를 취하며, 鳥를 鳥의 誤字로 보는 견해(양주동)를 취할 뿐 아니라, 逸과 鳥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想定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逸鳥川理는 讚者婆郎歌의 「逸鳥川理」와 일치하는 川名이 되며, 後行句의 薇와 對를 이루어 場所를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文面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變改시킨다고 비판받을 素地는 있으나, 다른 향가에 비해 遇賊歌에는 유난히 誤字와 缺字가 많은 것임을 염두에 들 때 위와 같은 수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遠」은 시간표현의 「今승」과 對를 이루는 공간표현의 부사어로 생각되며, 「未」는 현재진행(未完)의 표시로 본 김완진 교수의 견해를 취하여, 이것이 '-러'를 표시하는 「將來」와 對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只」를 見의 誤字로 보는 견해(김완진)를 받아 들이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26) /는 二行과 三行의 區分을 표시하는 것으로 필자가 편의상 표시한 것임.

바탕으로 하여 選賊歌의 前半部를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제의 크스민  
 즈시 코틀 보러든 날  
 멀이(멀리) 邊鳥川廻 다나디고  
 열든 수흐 가고성다

따라서 전체의 主語는 「제」가 된다. 이 해독은 문백 전체의 흐름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며, 「日遠鳥逸」을 山林의 暮景을 묘사한 漢文句로 보는 것보다 詩想의 흐름을 단순화시킨 것이 될 것이다. 또한 三國遺事 所在의 어느 항가에도 나타나지 않는 漢文句가 選賊歌에만 존재한다는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 3. 3 月

- ① 月良谷 다랑골(월성군 양북면)
- ② 月田谷 달밭골(월성군 감포)
- ③ 月下 다락골(월성군 서면)
- ④ 月川谷 달밭골, 달랫골(월성군 안강)
- ⑤ 月谷 다태골(영일군 오천면)
- ⑥ 月峯 달방우(영덕군 영해면)
- ⑦ 月宜洞 다릿골(영덕군 말산면)
- ⑧ 月牙邱 다태두들(영일군 지행면)
- ⑨ 月賢山 다래산(영일군 山川)
- ⑩ 月牙里, 月牙, 月下 다래(월성군 양남면)
- ⑪ 蓮川谷 달랫골(월성군 안강)

항가에서 「月」이 나타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가) 月羅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彗星歌)
- (나)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怨歌)
- (다) 露曉邪隱月羅理(瀆者婆郎歌)
- (라) 東京明期月良(處容歌)
- (마) 月下伊底亦(願往生歌)

「月」다음에 표기된 (가)의 羅와 (라)의 良을 助詞로 처리하여 해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sup>(27)</sup> 다른 해독자들은 모두 月 혹은 月羅理를

(27) (라)의 良을 단순한 音借로 보지 않고 光州千字文에 보이는 良의 訓「알」과 관련시켜 이것을 訓借로 본다면, 이것은 (마)의 月下伊나 (나)(다)의 月羅理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달」 혹은 「ㄷ라」 등으로 읽었는데 비하여, 김완진교수는 이들은 물론 (마)의 月伊까지 月羅理의 異樣表記로 보고 「ㄷ랄」 또는 「ㄷ라라」로 읽는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무시되거나 가볍게 넘어가 버렸던 羅理를 최대한 살려서 해독하려 한 태도이다.

新羅語에 있어서 「月」에 해당되는 단어가 「달」과 「ㄷ랄」 중 어느 것인지 향가의 例로만 쉽게 확정짓기가 어렵다. 「ㄷ랄」이라는 주장은 (나)(다)의 예들을 좋은 입증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라)(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가)는 문제가 된다. 다른 곳에서와 달리 (가)는 月과 置 사이에 어떠한 添記도 나타나지 않는데 「ㄷ랄」이 성립되려면 이 점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sup>(28)</sup>

앞서 제시한 ①~⑫의 俗地名에서 月羅理 혹은 月下伊와 관련시켜 볼 수 있는 것은 ①③⑦⑧⑩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①月良다랑, ⑦月宜다릿, ⑩月牙里다레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⑩月牙里의 牙里는 (마)月下伊의 下를 訓借로 해독할 때 양자의 音相이 近似하다. ④月川谷 달랏골, 달랫골, ⑫達川谷 달랏골도 고유어 지명만으로 본다면 「ㄷ랄」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도 있지만 漢字語 地名에 포함된 川의 訓 「내」가 「달랏골」이나 「달랫골」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르위의 ㄴ이 流音化되어 「달라」 또는 「달래」로 결과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점들로 보아 「月」의 新羅語가 「ㄷ랄」(혹은 「ㄷ라라」)일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으나 여전히 확정짓기 곤란한 문제점으로 남는다.

誓星歌의 다음 자료도 月의 意味와 같은 것으로 해독하는 입장과 이와 전혀 다른 태도로 해독하는 입장이 있어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後句 達阿羅 浮去伊叱邪

이에 대한 諸家の 해독은 다음과 같다.

小倉進平	後句 달(이) 벵갓더라
梁柱東	아으 돌아태 벵갓더라
池憲英	아으 ㄷ르르 벵갓드라
金善琪	달 아라이 뜨겟따라
徐在克	아으 달아라 벵가잇드라
金俊榮	아야 달이랏 벵갓드라
金完鎮	ㄷ라라 벵갓드야

(28) 제주도의 지명 중에 仁月(仁多) 인다라(최범훈, 1983: 185)는 「ㄷ랄」로 보는 견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자료이다.

서재극과 김준영은 「遼阿羅」를 動詞로 보았고(그 의미파악은 서로 다르다), 다른 해독자들은 모두 名詞로 보았다. 다만 지현영은 名詞로 보기는 했으나 그 의미는 「달」이 아니라 「軍兵네」 「衆生들」로 파악한 점이 다르다. 「遼阿羅」를 명사로 보아 「달」로 보든 「달아래」로 보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달(月)을 表記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서는 모두 「月」을 훈독하는게 이곳만은 음독을 하고 있는 점이다. 또 「遼阿羅」를 동사로 보더라도 향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동사는 훈독되는 것이 원칙인데 해독자들은 음독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의문점이 남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잠정적이기는 하나 羅를 목적형으로 본 서재극(1975, 43)교수의 견해를 받아 들이면서 遼의 訃訓을 탐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遼의 訓은 「스룻-」으로 나타난다.

通遼은 스뭇썩싸라<석十三 4>

스뭇썩달(遼)<類合上 1>

스뭇썩달(遼)<石干 20>

그러나 이 「스룻-」을 「遼阿羅」에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미진한 느낌이 앞선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이 요구된다.

4.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향가의 해독이 완결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의혹을 가진 句節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영남동부 지역의 俗地名이 향가해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 하였다. 본고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몇가지 미진한 부분 특히 3.2, 3.3에서 검토된 내용은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論究가 요구된다. 또한 俗地名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俗地名이 고대국어의 연구에도 상당히 흥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參 考 文 獻

- 姜信沆(1974), 「朝鮮語譯語研究」, 光文社.  
 金善鎭(1967~1975),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145~250.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출판부.  
 김주원(1981),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연구”, 서울대학교학원.  
 金俊榮(1979), 「鄉歌文學」, 형설출판사.  
 金守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대출판부.  
 南鎭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단국대출판부.  
 都守熙(1984), 「百濟語研究」, 弘文閣.

64 語文學(第49輯)

- 朴炳采(1968), “古代三國의 地名語彙攷”, 白山學報 5.  
\_\_\_\_\_(1973), 「古代國語의 研究」, 고려대출판부.  
徐在克(1975),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계명대출판부.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俞昌均(1985), “舟辰障의 地名에 대한 考察”, 淡島堂 金炯基先生 八堂紀念 國語學  
論叢.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 민중서관.  
李炳統(1982),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형설출판사.  
李崇寧(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研究”, 論文集 2(서울대).  
池憲英(1947), 「鄉歌異語新釋」, 正音社.  
崔明玉(1978), “병△와 東南方言”, 語學研究(서울대) 14-2.  
\_\_\_\_\_(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영남대 출판부.  
崔範熙(1976), 「韓國語學論攷」, 通文館.  
\_\_\_\_\_(1983), “濟州島 特殊地名에 대하여”, 「韓國語 系統論 訓民正音研究」, 集文堂  
小倉進平(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資料  
한국지명총람(1979), 한글학회.  
李朝語辭典(1964), 劉昌惇, 연세대출판부.